

朝鮮後期 風俗畫에 나타난 치마·저고리에 관한 研究

심 화 진 · 윤 혜 성*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A Study on Chima and Jeogori for Women appeared in Genre Pictures of Late Chosun Dynasty

Hwa-Jin Shim · Hye-Seong Yun*

Dept. of Clothing, Assistant Professor, Sungshin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e major findings of basic women wear in genre painting were :

1. Due to the influence of Shil-Hak (practical science) philosophy, Jeogori became shorter and a tighter fit came to be the norm.
2. The shortening of the Jeogori influenced a longer Chima with a wider span providing comfort in movement or at work. The end of the skirt was often held by one hand to the waist adding to comfort. This was called the Geo-dul-chima(Lifted Chima).
3. Because the Geo-dul-chima exposed a portion of ones underwear at the bottom of the dress this influenced the "ornamentation" of underpants and underskirts.
4. Collars or lapels came in the form of Dang-ko, Kal, Mok-pan and Ban-Mokpan. Among these Dang-ko style collars were the most common which allows us to conclude that this was the most popular.
5. The most commonly used colors for Jeogori were white(39.8%) and jade(18.3%). The most commonly used colors for Chima were deep blue(34.4%) and jade(20.4%). The lower Chima used the darker colors to give stability to the overall costume.
6. Clothing had the function of differentiating the classes. Only the Yang-ban were allowed to wear the Samhijang Jeogori and the Geob-Chima(double layered Chima) and the knotting of the Chima to the left. But the paintings show that these rules were not adhered to in the strictest manner.

With the bases of these types of Chima and Jeogori can look at the characteristic beauty of the ordinary women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First is the beauty which comes from mystery of

those parts of the body which can not be seen. A sense of subtle and sensual beauty as well as that coming from the enlargement of reduction of the upper body, narrow waist and abundant lower body parts creating an ideal silhouette of sexual charm. An expression of emotion through clothing by those who lived during those times.

Key Word : 풍속화(genre painting), 실학사상(practical science philosophy), 치마(skirt), 저고리(coat), 복식미(beauty of costume)

I. 서론

服飾은 인간의 미적표현의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신체를 보호해 주는 중요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服飾은 착용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사상과 가치관을 표출함으로써 시대상을 반영하며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다.

服飾이 주변국가들과 구별되는 양식으로 민족의 정서와 자긍심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리민족의 固有服飾 또한 우리조상의 독창적인 문화와 미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민족은 이미 기원전부터 男女 구별 없이 北方胡服系統의 의복인 襦와 袴를 基本服으로 입었는데, 여기에 中國의 영향을 받아 袴 위에 의례용으로 裳을 착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여인들의 基本服을 이루는 저고리와 치마는 上古時代 이래로 세부적인 형태에 변화가 있었을 뿐 그 구조나 고정적인 線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 없이 현재까지 傳統樣式으로 잘 계승하고 있다.

朝鮮後期の 服飾은 中期와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英·正祖 때부터 일어난 實學思想의 영향으로 실용성을 중요시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또한 實學思想의 영향으로 유행하게 된 朝鮮後期の 風俗畫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잘 표현하고 있고, 그 소재는 당시의 시대적 정신이나 사회적 상황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화의 내용에는 服飾文化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風俗畫에 나타난 인물들은 당시의 服飾을 관찰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

고 있으므로,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朝鮮後期 여자의 基本服飾을 이루는 치마와 저고리의 형태를 風俗畫의 인물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服飾의 미적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조선시대 후기(약1700년-1850년 경)로 제한하였으며, 본 연구에 쓰인 자료는 인물 풍속화로 여자인물의 복식 형태가 비교적 잘 나타나 있는 자료를 선별한 총 52점을 조사하였다. 작가별로 보면 菴園 申潤福의 작품이 34점, 檀園 金弘道의 작품이 7점, 尹斗緒, 尹溶, 趙榮祐, 金喜謙, 金得臣, 劉運弘, 馬君厚의 작품이 각 1점씩, 그리고 作者未詳의 작품이 4점으로 되어 있다.

연구방법은 風俗畫의 여자인물 93명의 저고리의 길이, 품, 색, 깃모양 등과 치마의 형태, 길이, 색, 착장형태와 그에 따른 실루엣, 여밈 등을 분석하여 朝鮮後期 여자 저고리와 치마에 나타나고 있는 미적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II. 역사적 고찰

1. 조선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朝鮮後期の 사회는 지배층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지탱하고 있던 토대가 흔들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탈바꿈해 갔다. 封建의 身分制度가 더 이상 원칙을 고집하지 못하게 되었고, 鄉村社會에서는 自活의 의지가 높아 갔으며, 性理學的 價値規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커 갔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구조의 변동에 의해 촉진되었는데, 생산력의 발달과 생산양식의 변화는 사회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였고, 性理學의 秩序를 무의미하게 하였다.

朝鮮後期の 영농기술의 발달은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일부의 농민들이 富農層으로 성장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에서 밀려나 賃勞動者가 되는 農民層의 分化現狀은 토지소유의 집중으로 인해 유발되기도 하였다. 다수의 농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점차 농촌에서 유리되어 도시로 나가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賃勞動者가 되었다. 따라서 朝鮮後期에는 인구의 자연증가 뿐만 아니라 농민의 계층분화가 심화되어 농촌으로부터 유리된 인구의 도시 유입으로 상업활동이 더욱 활발해졌다. 17세기 이래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수공업 생산이 활발해지면서 상품의 유통이 활성화되어 갔고, 이 시기 이후 널리 확산된 부세 및 소작료의 金納化는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을 보다 촉진시켰다. 이처럼 도시에서는 상품화폐경제가 진전되면서 상업 자본가와 독립 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종래의 사회계층구조를 변질시켜 마침내 신분제의 동요를 초래했다.

朝鮮後期の 사회는 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었지만 在野學者들의 냉철한 비판의식과 향상된 서민의 의식, 그리고 간접적으로 받아들여진 서양문화, 滄의 考證學을 통하여 깨우쳐진 실증정신 등으로 인하여 혼란한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상이 일어나게 된다. 즉, 혼란한 사회적 상황 아래에서 관념화된 예학과 性理學은 학문으로서 그 의미를 잃었고, 뜻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현실성을 상실한 학문을 바로 잡고, 자아의 자각으로 우리나라의 실지실정에 입각한 실증적인 사고를 세우기 위해서 새로운 學風인 實學을 일으켰다.¹⁾

實學은 朝鮮後期라는 한 시대의 사조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간단히 꼽아 설명하기

는 어렵지만 이 學風의 정신상의 공통점을 몇 가지 들면, 첫째는 비판정신, 둘째는 실증정신, 셋째는 생산적인 기술을 천시하던 것을 타파하여 민중을 위한 것으로 하자는 實用情神이었다.²⁾ 實學思想의 현실적 사고와 서민경제의 발전으로 기존의 권위주의에 의해 억눌림 당하던 인간성을 긍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문학과 예술에서 표면화되었다. 즉, 實學이라는 새로운 學風으로 현실에 근거하여 권위주의에 저항하고 인간성을 존중하는 사상운동과 서민경제의 발달로 인한 서민의식의 개화, 서구문물의 도입과 수용, 새로운 안목, 英·正朝의 예술애호 등은 새로운 예술관을 형성하였다.³⁾

결국, 한 시대의 사상과 의식은 同時代의 생활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문학과 예술을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朱子學의 權威主義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우리의 것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해석했고, 그것은 實學思想의 실증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2. 조선후기의 풍속화

風俗畫는 인간의 생활상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그림을 일컫는 말로, 그 의미에는 근대 회화에서 현실 재현의 사실주의 개념과 달리 민중의 생산활동과 생활주변의 평범한 일상사를 세속적인 것으로 생각한 지식층의 思想意識이 내포되어 있다.⁴⁾

朝鮮後期에는 실증적 태도를 취했던 實學이 英祖(1724~1776)와 正祖(1777~1800)를 거쳐 純祖(1801~1834)에 이르는 동안 융성하였는데, 이러한 자아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實學의 대두는 朝鮮後期の 미술의 추이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대략 肅宗(1674~1720) 後半에 해당하는 1700년 경을 전후해서 朝鮮後期の 회화에 새로운 경향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中期 이래 유행하던 浙派의 畫風이 쇠퇴하고 文人畫·南宗畫가 유행하게 되었고, 둘째, 南

宗畫法에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는山川을 독특한 畫風으로 표현하는 眞景山水畫가 나타났고, 셋째, 風俗畫가 흥미하게 되었으며, 넷째 서양화법이 전래되어 부분적으로 수용된 점이다.

18세기 이래 도시와 농촌의 변화, 사회계층의 분화는 전통적인 양반중심의 가치관을 크게 동요시켰고, 민중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서민중심의 문화를 대두시켰으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은 서민의 지배층에 대한 반의식의 표출이라고 볼 때, 이는 계층적 의식의 표출과 같은 맥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⁵⁾ 이와 같은 예술의 사회성에 대한 인식아래 朝鮮後期에 있어 實學의 思想이 부각되어 민족주의적이고 자의식적인 사상이 당시 風俗畫의 민족적이고도 인간중심적인 삶의 진실된 면으로 나타났다.

朝鮮後期の 風俗畫는 18세기 전반과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8세기 전반에는 山水背景을 중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배제하여 장면만을 부각시키는 두 가지 방법이 구사되었으나, 원칙적으로는 배경을 그려 넣는 것을 선호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주로 士人風의 畫家들에 의해 전개되었는데 대표적인 화가로는 趙榮祐(1681~1761), 尹斗緒(1668~1715), 李麟祥(1710~1760) 등이 있으며 畫圓으로서 士人風의 風俗畫를 그린 작가는 金斗樑(1696~1763), 沈師正(1707~1769), 李寅文(1745~1821) 등이 있다.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에는 畫圓風의 畫家들이 주로 활동했는데 作家로는 金弘道(1745~1810년대), 申潤福(18세기 중엽~19세기 초반), 金得臣(1754~1822)을 꼽을 수 있고 그들은 서민의 일상생활의 주변을 진솔하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다.

특히 檀園 金弘道와 菴園 申潤福의 작품들은 朝鮮後期 風俗畫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金弘道の 風俗畫는 주로 朝鮮後期の 농민이나 수공업자 등의 서민생활의 단면을 소재로 한 것이 많으며 조선적인 정취를 풍겨주는 것들이었다. 반면 申潤福은 무속이나

주막의 정경 등을 그려 서민사회의 생활을 보여주기 도 하였고, 특히 閑良과 妓女를 중심으로 한 남녀간의 愛情 또는 春意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유교중심의 사회에 반발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귀족의 향락적인 사치성을 비난하고 현실을 긍정하는 해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後期の 風俗畫의 특징은 한국적인 소재와 주제를 독창적인 기법으로 다룬 서민예술이라는 점, 實學思想의 실증적인 사고에 바탕을 둔 민족적 리얼리즘의 예술이라는 점, 그리고 유교주의적 사회 세계에 억눌렸던 인간성 긍정이라는 점이다.⁶⁾ 결국 風俗畫는 서민생활과 관계가 깊고 꾸밈없이 서민들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였으므로 대중의 예술이었고, 민족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서민들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회화로써 가치가 인정되고 많은 감동을 주었다.

Ⅲ. 조선후기 여자 복식의 경향

朝鮮後期는 복식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로써, 예의를 갖추기 위해 입는 격식을 따지고 의례화하여 외관적인 효과를 화려하게 나타내려는 이전 시대의 예의관에 나타난 服飾의 미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실용의 조짐이 나타나면서 衣服은 자아의 주체적인 성향으로 변모하기 시작한다. 즉, 실학의 사상적 영향으로 인해 기능적이고 실용적으로 움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려는 움직임은 복식에서도 나타나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피복 이상으로 과장되게 늘어 있던 의복이라는 제약으로부터 체형을 의식하는 간소함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이 시기의 女子服飾 중 저고리는 많은 형태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상고시대 이래로 거의 변화가 없었던 치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지고, 소매통이 좁은 短小化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반면 저고리나 치마의 접속부분이 올라가게 되어 자연히 치마길이가 길어지

고 폭이 넓어지는 長大化가 이루어졌다.

저고리의 변화를 살펴보면 朝鮮時代 이전까지는 저고리의 길이가 엉덩이를 덮을 정도로 길던 것이, 朝鮮初期에는 어느 정도 유지되다가 後期로 갈수록 점차 짧아지기 시작하여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아진 것도 볼 수 있었다.

1700년대까지는 저고리 길이가 대략 42cm에서 78cm 정도였는데, 1800년대 淸衍郡主의 저고리 길이는 27cm로 짧아지고 동시에 진동과 소매부리, 소매통이 함께 작아지는 縮小化가 이루어져 1700년대의 저고리와는 상당히 다른 형을 보이고 있다. 또한 1890년대의 길이가 16cm 정도 밖에 안되고 진동이 14cm 정도의 극도로 짧은 저고리가 유행하였음을 실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朝鮮時代 中·後期 이후 지속적으로 短小化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⁷⁾

實學思想의 영향 중 복식의 간소화는 저고리 형태의 短小化 뿐 아니라 의복의 중복성의 간소화도 함께 이루어 졌는데, 內衣가 노출된 것이 그것이다. 본래 朝鮮時代에는 겹저고리 속에도 속적삼, 속저고리를 입었다. 그러나 壬辰倭亂에 이르면 문헌에 여자들이 속적삼 차림이라는 거론이 자주 나오는데, 內服으로 입던 속적삼을 外衣로 착용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의복의 개량이나 간소화의 주장으로써 실용을 앞세운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

또한, 저고리의 短小化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저고리가 인체에 극단적으로 밀착됨을 말해주고 있는데, 요사스럽다는 지탄을 받으면서도 입었던 것은 특히 기녀들의 사회에서 착용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러한 형태의 저고리를 기녀뿐만 아니라 부녀자들에게까지 대중적으로 착용되었던 것으로, 유행 중 양반의 의복에도 이러한 저고리가 나오고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⁸⁾

저고리의 변화에 따라 치마도 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朝鮮後期の 치마에 있어서는 저고리가 短小化되어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반비례적으로 치마

의 길이가 길고 폭이 넓어지는 현상이 일어났다. 치마 아래에는 속속곳, 바지, 단속곳, 너른바지, 대습치마, 무지기 등의 속옷을 착용하여 하체를 한껏 부풀렸는데, 이것은 상체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下厚上薄’의 형태를 띠고 있다. 서민층 이하 기녀 또는 노비들은 긴치마 자락을 바깥 치켜 여며 입어 속옷이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거들치마’를 입기도 하였다.

결국, 朝鮮後期는 실학자들이 정치, 사회의 제도적 측면에 대해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주장함에 따라 문화의 일면인 복식에도 자연히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저고리의 短小化가 이루어지고 이에 반비례하여 치마가 長大化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독특한 服飾美를 창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IV.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복식

1. 저고리

朝鮮後期の 저고리가 이전과는 달리 短小化 현상이 일어났음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다. <표 1>을 보면 1700년대 초기의 작품인 尹斗緒의 <採艾圖>와 尹溶의 <挾籠採春> 등에서 볼 수 있는 저고리는 허리를 덮고 있는 형태로 품과 소매가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적당히 넉넉해 보인다. 1748년의 작품인 金喜謙의 <石泉閑遊圖>의 妓女의 저고리를 보면 허리선에 못 미치는 저고리 길이에 묶은 허리띠가 보이며 소매통도 좁아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朝鮮中期부터 점차 짧아지기 시작한 여자의 저고리는 後期에 들어와서 더욱 짧아져 허리말기와 겨드랑이 살이 보일 정도가 되었는데⁹⁾ 申潤福의 <少年剪紅> (그림 1)에 나타난 庶民層 女人을 보면 저고리의 길이가 짧아 가슴을 덮지 못하는 위치에 이르고 품도 매우 좁은 것을 볼 수 있다.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품이 꼭 끼는 현상과 더불어 소매통 또한 매우 좁아졌는데 申潤福의 <蓮塘



<그림 1> 申潤福 「少年剪紅」

의 女人)(그림 2)의 직선 배래의 팔에 꼭끼는 소매통과 몸에 밀착되는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는 기녀의 모습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깃과 쇠의 소형화와 함께 쇠의 위치가 중앙으로 오며 옷고름은 위로 바짝 올라가 달려 목의 노출이 거의 없다.



<그림 2> 申潤福 「蓮塘의 女人」

한편, 이같은 短小化 현상과는 다른 저고리 형태도 보이는 바 金弘道의 <酒幕>에서 보이는 여인은 몸과 소매통이 넓고 허리까지 오는 저고리를 입고 있고, 金弘道의 <行商>에서도 당시 유행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저고리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들

은 생업을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庶民婦女子들로서 행동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되는 지나치게 短小化된 저고리를 착용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표 1>에서 보면 조선후기에는 단소화된 저고리가 유행하여 귀천없이 착용되었지만 일부 서민들의 복식 중에서는 넓고 길이가 긴 저고리가 보이고 있어 당시에 이 두가지 형태의 저고리가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저고리 형태의 변천은 하나의 유행경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같은 시기에도 신분에 따른 형태의 차이를 보임으로써 하류층에 비해 상류층과 妓女가 그것의 수용에 민감하였을 것이고 이는 또한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활동을 많이 요하는 庶民層에게는 短小化된 저고리의 착용이 불가능하였을 것¹⁰⁾으로 짐작된다.

저고리 길이의 변화에 따라 저고리 아래로 드러나 보이게 되는 허리말기는 의복 중 가장 신체에 밀착된 부분으로 저고리 길이가 짧고 좁아지면서 가슴을 가리기 어려워지자 가리개용 허리띠를 만들어 착용하게 되었다. 申潤福의 <年少踏青>(그림 3)에 나타난 기녀의 모습에서처럼 가슴과 허리 전체를 감싸는 가리개용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다. 가리개용 허리띠는 이같이 은폐를 위한 용도로 쓰이기도 하지만 허리의 선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있어 인체구조상 바로 아래에 연하고 있는 하체를 더욱 풍만해 보이



<그림 3> 申潤福 「年少踏青」

<표 1> 조선후기 풍속화 인물의 저고리 형태

	양 반 · 기 녀	서 민	
18C 전반	 <p><김희경> 석천한유도</p>	 <p>윤두서 <채애도></p>	 <p>윤용 <협농채춘></p>
18C 후반 ~ 19C 전반	 <p>신윤복 <연소담청></p>	 <p>신윤복 <니승영기></p>	 <p>김홍도 <주막></p>
	 <p>신윤복 <문종심사></p>	 <p>신윤복 <어물장수></p>	 <p>김홍도 <행상></p>
	 <p>유운홍 <기녀></p>	 <p>신윤복 <단오풍경></p>	 <p>김홍도 <우물가></p>

도록 유도하고 있어 선정적인 미를 자아내고 있다. 이는 저고리의 단소화와 함께 체형을 드러내는 개방적인 미의 표출 방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저고리 구성요소 중 저고리의 중앙에 위치하는 깃의 형태는 눈에 잘 띄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에 나타난 조선후기의 깃 모양을 살펴보면 당코깃, 목판깃, 반목판깃, 칼깃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풍속화에서 깃의 형태가 식별이 가능한 인물 52명 가운데 47명의 저고리가 당코형식의 깃형태를 하고 있어 당시에 당코깃으로서 유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에는 당코깃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다양한 깃의 형태가 나타났는데 여기에 예외적인 경우로서 19세기 말 이후에나 나타나는 등근깃의 형태가 18세기 말경에도 보이고 있다.

풍속화에 나타난 저고리의 색을 보면 흰색을 비롯해 옥색, 황색, 연황색, 분홍색, 연두색, 녹두색, 연갈색 회색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풍속화 인물 93명 중 흰색이 37명(39.8%), 옥색이 17명(18.3%)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서민층은 주로 흰색, 옥색, 연갈색 등이 주조를 이루었다.

조선후기의 평상복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남색 치마와 옥색 저고리는 궁중복에서 일반여성의 평상복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된 복색으로 상하의가 동색 계열인 것으로 해서 수수하고 평범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단조로움에 저고리에 이색을 첨가한 것은 강한 액센트가 되어 색채대비의 효과를 보여준다. 깃, 고름, 끝둥, 결마기 등 네 부위에 바탕색과 다른 색을 배색하는 삼회장저고리는 이색의 사용으로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바탕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저고리를 한층 화려하게 하고 있다.

당시 삼회장 저고리는 반가부녀자의 전유물로써 기녀와 서민부녀자는 착용이 금지되었다¹¹⁾고는 하나 풍속화에서 보이는 기녀들 중 대다수가 이 삼회장 저고리를 착용하고 있어 기녀에게 있어서는 신분을 초월한 복식의 사치가 허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申潤福의 <聞鍾尋寺>(그림 4)의 양반층 여인을 보면



<그림 4> 申潤福 「聞鍾尋寺」

흰색의 짧고 좁은 저고리에 자주색 삼회장을 달아 입은 모습이 나타나 있고, 劉運弘의 <妓女>(그림 5)의 기녀를 보면 역시 결마기의 색이 다른 삼회장 저고리를 입고 있어 위의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풍속화를 통해 살펴본 조선후기의 저고리는 단소화 현상으로 인해 짧고 밀착되는 형태로 구조상 가슴을 가리기가 어려워져 가리개용 허리띠를 만들어 입게 되었고, 이는 맨살을 보이지 않으려는 은폐의 기능과 가는 허리를 과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꼭 맞는 짧은 저고리와 함께 개방적인 미의 표출을 가



<그림 5> 申潤福 「妓女」

<표 2> 조선후기 풍속화 인물의 깃모양

<p>18C 전반</p>		
	<p>칼깃 (조영석 <바느질>)</p>	<p>당코깃 (김희겸 <석천한유도>)</p>
<p>18C 후반 ~ 19C 전반</p>		
	<p>칼깃 (김홍도 <길쌈>)</p>	<p>당코깃 (신윤복 <미인도>)</p>
		
	<p>목판깃 (마군후 <춘녀채종>)</p>	<p>둥근깃 (김홍도 <어촌귀가>)</p>

능하게 하였다. 또한 단조로운 저고리의 색상에 異色을 첨가하여 강한 색채대비를 이루게 함으로써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색채에 대한 美意識을 표현하여 저고리의 美的價値를 한층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치마·바지

朝鮮後期の 치마는 길이가 땅에 끌리 정도로 길었으며 폭도 매우 넓었는데, 이는 前代에 비해 저고리 길이가 짧아지고 좁아지면서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갖고 치마의 크기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조선후기에 치마의 특이한 착장방법에 의해 생겨난 '거들치마'는 땅에 끌릴 정도의 긴 장방형 천의 상부에 주름을 규칙적으로 잡은 치마를 여미는 자락을 끌어당겨 허리 끝에 높이 고정하는 것이다. 거들치마는 서민층 이하의 계층에서 보행이나 일할 때 긴 치마자락에서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착장형태로, 외형상 아름답고 간편하여 반가부녀와 기녀들도 보행시 거들치마로 하여 입기도 하였고 풍성하고 많은 주름을 잡아 고정시킴으로 해서 품위와 맵시가 한층 돋보였다. 申潤福의 〈林下投壺〉(그림 6)을 보면 기녀가 황색의 폭 넓은 치마의 자락을 앞으로 끌어올려 허리 부근에서 고정시켜 둔부가 확대되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申潤福 『林下投壺』

이처럼 치마자락을 끌어올림으로 해서 치마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짧아지게 되고 따라서 치마 아래로 속옷이 노출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外衣로

써의 기능을 담당하던 바지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치마를 外衣로 하고 바지는 치마아래에 속옷으로 착용하게 되어 內衣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조선후기에는 장대화된 치마를 착용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하의에 속하는 속옷류를 많이 껴입게 되었고 이는 유교주의적 관점에서 강조하던 정숙함을 표현하여 은폐의 미덕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단속곳과 바지는 조선시대 여인의 폐쇄적인 복장과는 반대로 오히려 노출을 함으로 해서 선정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인체를 노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가려진 부분이 들여다보이는 은폐에 대한 역설적 노출로 은밀한 정서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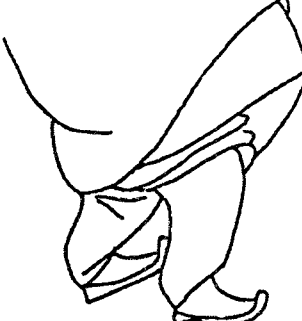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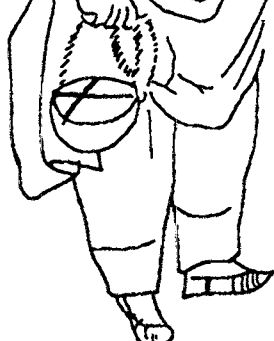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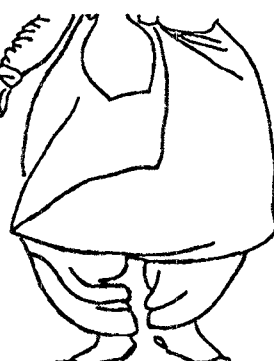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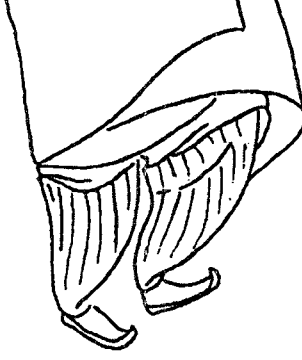


거들치마는 착장방법상 치마의 도련선이 올라가고 바지가 노출되기 쉬웠으므로 주로 고급옷감을 사용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서민층은 견어울린 치마 아래로 보이는 바지부리 부분에만 고급직물을 덧대어 장식하여 입음으로써 미적욕구를 충족하였던 바 이러한 장식의도는 기녀의 화려한 속옷사치를 모방하려했던 결과로 생겨난 것이다.

조선후기에 나타나는 하숙배의 또 다른 형태의 치마인 폭이 좁고 길이도 짧은 '두루치'라는 것을 착용하였는데 양반층이나 기녀의 길고 풍성한 치마에 비해 짧고 좁아 맵시가 없어 보이는 하지만 활동하기에 편리한 기능적인 치마형태였다.

조선후기의 거들치마와 두루치의 착용으로 속옷이 노출되는 모습은 〈표 3〉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서민에게서는 궁고와 바지 밑단에 다른 천을 덧댄 형태, 바지통이 넓고 부리가 좁아지는 형태, 노동시 활동하기 편하도록 무릎까지 견어올리거나 종아리에 행전을 친 형태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반부녀자나 기녀는 주로 바지부리가 좁아지는 관고를 착용하고 겨울에는 고운 누비바지를 입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치마를 둘러 여미는 방법과 방향을 달리하여 계층간의 신분의 차이를 표시하기도 하였는데

<표 3> 조선후기 풍속화 인물의 바지 형태

양 반 · 기 녀	서 민	
 <p data-bbox="233 691 418 724">신윤복 <기방무사></p>	 <p data-bbox="644 691 802 724">윤두서 <채애도></p>	 <p data-bbox="1001 691 1173 724">김홍도 <우물가></p>
 <p data-bbox="233 1155 418 1188">신윤복 <이부탐춘></p>	 <p data-bbox="624 1155 802 1188">신윤복 <니승영기></p>	 <p data-bbox="967 1155 1159 1188">신윤복 <홍루대주></p>
 <p data-bbox="233 1607 418 1640">신윤복 <야금모행></p>	 <p data-bbox="637 1619 802 1651">윤용 <협농채춘></p>	 <p data-bbox="967 1619 1118 1651">김홍도 <행상></p>

치마자락의 여밈은 신분과 당파의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고 지방에 따라 각 특색적 여밈을 달리 했다.¹²⁾

양반부녀는 기녀와 치마의 형태는 같더라도 여밈 방향을 왼쪽으로 하며 기녀와 서민층은 오른쪽으로

여며 입었고, 이것은 대부분의 풍속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申潤福의 <두 女人>(그림 7)과 <開鍾尋寺>(그림 8)에서도 기녀와 서민층 여인이 오른편으로 여며 입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7> 申潤福 「두 女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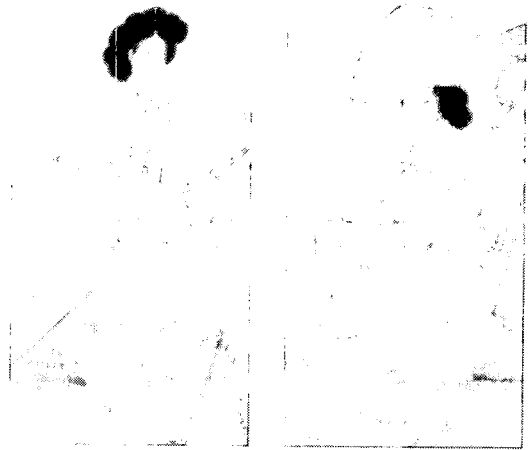
<그림 8> 申潤福 「開鍾尋寺」

그러나 申潤福의 <尼僧迎妓>(그림 9)를 보면 본래 서민층 여인은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며 입어야 하는데 왼쪽으로 여며 입었고, <路中相逢>(그림 10)에서의 두 여인은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여며 입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것으로 보아 치마의 여밈방향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¹³⁾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사회로 복식에 있어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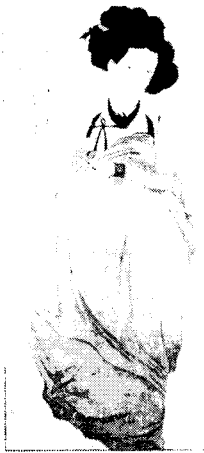


<그림 9> 申潤福 「尼僧迎妓」



<그림 10> 申潤福 「路中相逢」

계급의 차이를 두었는데 치마의 여밈방향, 삼회장 저고리와 겹치마의 착용가부가 그러하다. 본래 치마 자락을 왼편으로 여미고 삼회장 저고리를 착용하는 것은 반가부녀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것이었으나 이미 앞에서 풍속화를 통해 살펴본 바로 드물게 서민이나 기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 일률적이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作者未詳의 <美人圖>(그림 11)에서는 기녀로 보이는 여인이 삼회장 저고리에 겹치마를 왼편으로 여미고 있어 마치 양반층 여인의 차림새를 하고 있는 듯 하다. 결국 이같은 신분표식의 요소가 계급구분 없이 혼재되어



<그림 11> 作者未詳 『美人圖』

나타남으로써 복장의 형태만으로는 착용자의 정확한 신분을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라 하겠다.

풍속화에 나타난 치마의 색은 남색, 연남색, 흰색, 옥색, 진옥색, 다홍색, 연황색, 연갈색, 진회색, 검정색 등으로 다양하게 보이며 바지와 단속곳의 경우는 거의 흰색이다. 이 중 남색이 93명의 인물 가운데 32명(34.4%)으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고, 옥색이 19명(20.4%)의 많은 나타나고 있어 치마의 색에 있어서 뚜렷한 계열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가부녀자 또는 기녀에 비해 서민부녀자의 치마색은 주로 흰색, 옥색 등의 일부 색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여자복식에서는 상하 서로 다른 색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하의인 치마의 색상을 상의인 저고리보다 짙고 어둡게 명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고, 상의와 하의의 경계가 되는 도련선의 미가 선명하게 부각되는 미적효과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⁴⁾

풍속화를 통해 치마를 고찰한 결과 조선후기의 치마는 저고리의 단소화로 인해 장대화 되었고 이러한 치마를 풍성하게 부풀려 입음으로 해서 '下厚上薄'이라는 복식의 미적 특성이 가능해 졌다. 그리고 폭이 넓고 긴치마를 활동하기에 편리하도록 끌어올려 허리에 끈으로 고정시켜 입음으로 해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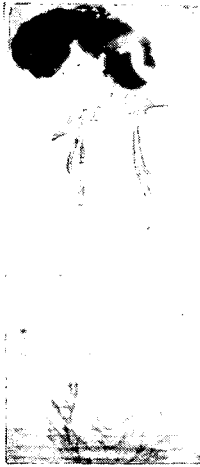
능을 살리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주름의 선과 둔부 이하가 과장되어 아름다움을 표현하게 되고 심미성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거들치마의 착장법상 치마 아래로 속옷이 드러나는 것과 치마를 부풀려 입는 것은 내의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치마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속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것은 인체를 은폐하게 되고 또한 거들치마로 인해 그 속옷이 노출됨으로써 은근한 선정적인 미가 나타나 서로 상반되는 이중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다.

3. 복식미

인간이 服飾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두 가지 서로 모순된 경향을 갖는다. 하나는 인체를 은폐하여 인간의 도덕심을 만족시키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체를 노출시켜서 미를 나타내어 인간의 내적인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¹⁵⁾ 그러므로 거들치마의 착장방법으로 인한 속옷의 노출에서 표출되는 미적특징은 모순된 두 가지의 미, 즉 은폐미와 노출미가 동시에 충족된다는 점이고, 이는 조선후기의 '下厚上薄'에 나타나는 신체부위 강조에 의한 복식미와 더불어 여자복식에 나타나는 에로티시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作者未詳의 <美人圖>(그림 12)나 申潤福의 <美人圖>(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조선후기 '下厚上薄'의 실루엣에서 나타나는 선정성은 短小화된 저고리로 표현된 가냘픈 상체와 가리개용 허리띠로 인해 압박된 허리에 의한 체형의 노출, 상체와는 대조적으로 속옷에 의해 겹겹이 싸여 완전히 은폐되어지고 풍부하게 부풀려진 하반신, 그리고 거들치마의 착용으로 더욱더 확대된 둔부와 속옷의 노출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服飾에서 나타나는 美는 인간의 내면욕구를 의복이라는 조형물을 통해 표출한 것으로서 色彩와 線을 매개로 하여 미의식을 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2> 作者未詳 『美人圖』



<그림 13> 申潤福 『美人圖』

V. 결 론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고, 따라서 유물이 희박한 서민들의 복식 형태를 살펴보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朝鮮後期 風俗畫에 나타난 여자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선후기에는 저고리 길이가 중기보다 짧아져

가슴선에 오거나 가슴을 가리기 어려운 위치에 오게 되고 품과 소매통이 좁아 몸에 꼭 끼는 저고리의 단소화 현상이 일어나 가슴과 허리의 노출을 막는 가리개용 허리띠를 착용하였다. 반면 일부 서민층에서는 허리까지 오는 길이에 품과 소매통이 넉넉한 형태의 저고리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당시에 단소화된 저고리와 함께 공존했음을 알 수 있다.

2. 저고리의 단소화 경향은 치마의 장대화라는 반비례적 상관관계를 유발시키게 되는데, 서민층이 하 기녀 또는 노비는 길고 넓은 치마를 일할 때나 보행시 활동하기 편리하도록 치마자락을 잡아 올려 허리부근에 고정시켜 입는 '거들치마'의 형태로 착용하였고, 좁고 짧은 '두루치'를 입기도 하였다. 또한 반가부녀자나 기녀들도 보행시 불편하지 않도록, 혹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거들치마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후기에 상하구분 없이 크게 유행한 치마형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치마의 장대화 현상으로 하의류에 속하는 속옷을 치마아래에 많이 끼입어 풍성하게 부풀려 입는 현상이 생기게 되고, 거들치마의 착장으로 인한 단속곳과 바지의 노출로 장식성을 띠게 되어 내의 문화가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4. 분석자료에서 보이는 것은 당코깃, 칼깃, 목판깃, 목판깃 등이었고, 그 중 당코깃이 신윤복을 비롯해 다른 화가들의 작품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어 조선후기에 당코깃의 유행을 볼 수 있었다.

5. 분석자료에 나타난 색을 보면 저고리의 색은 흰색(39.8%)과 옥색(18.3%)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황색, 연황색, 분홍색, 연두색, 녹두색, 연갈색, 회색 등 다양한 색이 보이고 있다. 치마의 색은 남색(34.4%)과 옥색(20.4%)을 비롯해 진옥색, 다홍, 연황색, 진회색, 검정색 등이 나타났으며, 주로 상의보다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하의를 짙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6. 의복이 신분구별을 가능케 하는 기능이 있어 삼회장 저고리와 겹치마의 착용, 치마의 원편 여밈

이 반가부녀에게만 허용되어 있었는데 풍속화의 인물들을 관찰한 결과 신분에 관계없이 양반, 서민, 기녀 모두에게 나타나고 있어 흔재됨을 보여주며 이는 신분상승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풍속화를 통해 본 저고리와 치마의 형태를 바탕으로 조선후기의 일반여자 복식에 나타난 미적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의 노출을 막아주는 가리개용 허리띠는 은폐의 기능과 함께 가슴과 허리 부위를 밀착시켜 압박함으로써 몸매가 드러나는 체형의 노출현상을 가져오게 되고 선정적인 미를 자아내고 있다.

둘째, 장대화된 치마를 풍성하게 부풀리기 위해 치마 아래에는 속옷을 많이 끼입었는데 이같은 신체의 은폐는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거들치마의 착용으로 인해서 속옷이 노출됨으로써 은밀한 정서를 표출하여 독특한 에로티시즘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의복에 나타난 색채에 있어서는 남색 치마에 옥색 또는 흰색 저고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단조로운 동색 계열의 색채조화에 저고리의 깃, 고름, 끝동, 결마기 등에 다양하게 異色을 첨가함으로써 의복의 형태를 부각시키고 바탕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색채에 대한 미적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넷째, 여자복식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둥근 곡선을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 당코깃의 곡선이 전체적인 복식의 선과 조화를 이루어 곡선의미를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다섯째, 조선후기에는 저고리가 단소화 현상으로 짧고 밀착되는 형태가 되고, 가느다란 허리는 가리개용 허리띠로 압박하여 강조하고, 장대화된 치마는 속옷을 많이 입음으로 해서 허리 밑 부분을 볼록하게 키워 밀로 내려가면서 조금씩 좁아지는 항아리형 외곽선을 형성하거나 거들치마의 착장으로 둔부가 과장되어 ‘下厚上薄’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이는

축소와 확대를 통한 신체부위의 강조로서 조선후기의 에로티시즘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복식은 단순한 착장구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독특한 미적특성을 보이고 있다. 조선후기 복식의 형태미와 기능미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이를 오늘날의 한복에 재조명함으로써 해서 장점을 살리고 전통성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아울러 우리의 전통복식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고복남. 「한국전통복식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86.
-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서울: 열화당, 1998.
- 김영숙. 「한국복식문화사전」. 서울: 미술문화, 1998.
-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 백영자. 「한국의 복식」. 서울: 경춘사, 1996.
- 박준득(편). 「조선풍속사」. 서울: 사회과학출판사, 1998.
-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1985.
- 손경자·김영숙. 「한국복식사 자료선집 조선편 III」. 서울: 교문사, 1982.
- 안명숙·김용서. 「한국복식사」. 서울: 예학사, 1998.
- 유송옥. 「한국복식사」. 서울: 수학사, 1998.
- 유희경. 「한국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1995.
- _____.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9.
- 이동주. 「우리나라의 옛그림」. 서울: 학고재, 1996.
- 이우성. 「실학연구서설」 「실학연구입문」. 서울: 일조각, 1976.
- 이태호.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1997.
- 임명미. 「한국의 복식문화 II」. 서울: 경춘사, 1997.
-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8.
- 천관우. 「유형원-실학의 선구」 「조선실학의 개척자 10인」. 서울: 신구출판사, 1979.
- 「이조풍속화첩」. 서울: 지식산업사, 1974.
- 「한국의 미 19, 풍속화」.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한국의 미 20, 인물화」.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한국의 미, 21, 단원 김홍도」.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한국회화」. 서울: 도산문화사, 1981.
- 「해원 전신첩」. 서울: 탐구당, 1974.
- 권현주. 「조선후기 판소리계 소설 속에 나타난 기녀복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1993.
-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 _____. 「복식에 표현된 미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 김경옥. "의복의 노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 김나영 · 김용서. "조선후기 기녀복식이 일반부녀자 복식에 미친 영향." 복식, 39호, 1998.
- 김나형. "조선후기 기녀복식이 일반부녀자 복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8.
- 김성경.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김순철. "조선조 후기의 실학사상과 풍속화."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8.
- 김승혜. "한복 차림새의 변천을 통해서 본 한국인의 미의식."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1995.
- 김영자. "한국 복식미에 표현된 에로티즘에 관한 연구." 복식, 21호, 1993.
- _____. "한국복식미의 연구." 복식, 16호, 1991.
- _____. "한복의 황금비분석에 의한 연구." 복식, 8호, 1984.
- 김옥련. "조선시대 실학사상에 의한 조선후기회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1.
- 김옥희. "우리나라 여복형성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74.
- 김인경. "혜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호, 1995.
- 김혜진. "한국여성 친의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88.
- 남궁윤선. "조선후기 풍속화의 화풍과 그에 나타난 복식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1.
- 류재운 · 전혜숙. "조선후기 여자 저고리 단소화와 상징적 의미." 복식, 39호, 1998.
- 박경자. "혜원 풍속화에서 본 18세기 일반복식."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손경자. "개화기의 여복."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송지혜. "출토 저고리의 형태변화와 변화요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 심화진. "생활한복에 나타난 전통한복의 고유미 재현." 생활문화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13집, 1999.
- 양숙향. "조선후기 일반복식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6.
- 양숙향 · 김용서. "조선후기 여자 일상복의 변천에 관한 연구." 복식, 39호, 1998.
- 유송옥. "고구려의 복식구조."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유희경. "저고리와 친의류." 「한국의 복식」, 한국문화재보호협회, 1982.
- 이상국. "실학사상이 영 · 정조시대 회화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3.
- 이재일. "우리나라 기녀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석사학

- 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1993.
- 이재일 · 박춘순. "우리나라 기녀복식의 기호학적 접근." 복식, 22, 1994.
- 이주옥. "한국의복 여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임재영. "조선후기 복식발달의 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장석향. "여자치마의 역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71.
- 조효순. "조선조 풍속화에 나타난 여자의 기본복식연구 (1)." 한복문화학회지, 1(2), 1998.
- _____. "조선조 후기 여성복식과 개량논의." 복식, 4호, 1981.
- 최경진. "한복의 주름에 관한 연구." 복식, 16호, 1991.
- 최은수. "우리나라 여자바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
- 황의숙. "한국여성 전통복식의 양식변화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1995.
- _____. "한국 전통복식의 착의법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 1) 이우성, 「實學研究序說」, 「실학연구입문」 (서울: 일조각, 1976), p.3.
- 2) 천관우, "유형원-실학의 선구," 「조선실학의 개척자 10인」 (서울: 신구출판사, 1979), pp.14~15.
- 3) 김순철, "조선조 후기의 실학사상과 풍속화"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88), p.15.
- 4) 이태호, 「풍속화(하나)」 (서울: 대원사, 1997), p.6.
- 5) 金玉蓮, "조선시대 실학사상에 의한 조선후기회화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1991), p.38.
- 6) 김순철, 앞의 글, p.28.
- 7) 김인경, "혜원 신윤복 풍속화에 표현된 복식미의 연구." 복식, 25 (1995), p.8.
- 8) 김영자,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1992), p.243.
- 9) 김나형, "조선후기 기녀복식이 일반부녀자 복식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8), p.23.
- 10) 김성경, "조선후기 풍속화에 나타난 복식미"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p.24.
- 11) 석주선, 「한국복식사」, (서울: 보진재, 1992), p.437.
- 12) 이주옥, "한국의복 여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6), p.31.
- 13) 조효순, 「한국복식 풍속사 연구」(서울: 일지사, 1988), p.31.
- 14) 금기숙, "조선시대 복식에 표현된 한국인의 미의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7), p.99.
- 15) 김경옥, "의복의 노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83), p.1.